

## 5/16(월) 에스더 묵상 9

### 에스더 6:1-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가게 되고 아하수어로 왕의 호의를 입게 됩니다. 이 일로 에스더는 유다 백성을 지키고자 마음을 먹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두번씩이나 초대하게 됩니다. 하만은 이 상황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왕궁 바깥 뜰에 장대를 준비합니다.

#### 그 날 밤

본문 1절은 ‘그 날 밤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1절, “**그 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에스더와 하만은 둘 다 아하수어로 왕에게 다음 날 잔치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고하고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아하수어로 왕이 왕후 에스더를 어여쁘게 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하만은 나라에서 왕의 2인자였고 이미 하만은 왕으로부터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진멸 시킬 약속을 받아낸 상태였습니다(에 3:13-14, “**이에 그 조서를 역줄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과거 왕후 와스디가 고위급 신하들에 의해 폐위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에스더 또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자 명령하여 갑자기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역대 일기 속에서 자신이 모르고 있던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어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정확한 때에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하심과 그의 때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렘 29:12,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 하만보다 앞서 일하신 주님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던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다음 날 모르드개를 처형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만은 에스더보다 한 발 앞서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앞서서 일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시 121:4-5,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한편 아하수어로 왕은 왕의 역대 일기를 보고 신하들을 불러서 모르드개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는지 묻게 됩니다(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 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만약 신하들이 이 일을 미리 보았더라면 왕은 그냥 넘어갔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기적으로 하만의 적수인 모르드개를 왕이 알아보고 직접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왕은 왕궁 바깥뜰에서 악한 간계를 꾸미고 있던 하만을 부르게 됩니다. 이 때 하만은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인 줄 착각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분이 일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르드개도 사실 그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신하의 음모를 알고 에스더에게 알렸을 때 그 당시에는 왕이 바뻐는지 또는 무슨 영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모르드개의 일을 알지도 못했고 그를 보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그 때보다 더 좋은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때를 위해서 당시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가리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때를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주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멈춰서는 안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때와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 아프가니스탄이 기아 위기로 가장 어린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어린이 5명 중에 1명이 사망하고 있고 이미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기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전염성이 높은 홍역 질병의 확산으로 병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한 중증 급성 영양실조 아동의 수가 2021년 8월 2,407명에서 2021년 12월 4,21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의 아동 영양실조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적실한 의료와 식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험든 4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탄자니아 박재덕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